

“충분한 토론” “날치기 폭거”... 주류·비주류 끝없는 갈등

새정치혁신안 ‘반쪽 통과’ 후폭풍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진통 끝에 혁신안을 당 중앙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나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투표 전에 집단퇴장하는 등 의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통 끝 통과=이날 회의에는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 해외 국감에 참여 중인 김한길 전 대표, 정세균 전 대표 등은 불참했다. 또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박주선 의원 등도 도중에 퇴장했다.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경태 의원이 언론 공개를 요구하며 강력 항의, 시작부터 진통이 빚어졌으며 비공개로 전환된 뒤 일부 비주류 인사들이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주류·비주류 엇갈린 반응=혁신안 통과 후 문 대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주류 의원들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의결 직전 회의를 빠져나온 김동철 의원은 “지난 9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참석한 7명 중 4명의 최고위원이 공천혁신안의 당무위 상정을 반대했음에도 대표가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며 “또 이번 안건은 대표의 재신임 문제와 직결된 인사 안전임에도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공개투표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최원식 의원은 “반대의견을 무조건 반혁신으로 몰아 토론을 봉쇄했다. 구태정치이자 파권의 민낯”이라며 “혁신이 유신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수를 통한 만장일치로 혁신안을 처리한 김성곤 중앙위원회 의장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전남의 모 의원은 “투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는 와중에 김 위원장이 박수로 통과를 결정하자고 말하고 주류 진영의 중앙위원들이 찬성한다고 하자, 날

비공개 전환 후 고성·욕설까지

文 “추석전 재신임 투표 강행”

주류·비주류 일부 출구전략 모색

치기하듯 방망이를 두드렸다”며 “정말 기가 막힐 일”이라고 성토했다. 광주의 모 의원은 “김 위원장은 평소 ‘도(道)의 정치’를 주장하는데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경선 룰 변경 등 결정적 순간에는 주류 측의 입장에 서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앙위에서 투표 방법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며 압도적인 중앙위원들이 박수를 통한 혁신안 통과에 찬성했다”며 “특히, 중앙위는 기립 및 거수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관례”라고 반박했다.

◇향후 전망=이 같은 비주류의 반발 속에 문 대표가 추석 전에 별도의 재신임 투표를 강행할지가 이후 계파갈등의 핵폭탄의 운명을 좌우할 뇌관으로 부상했다. 문 대표는 “당을 둘로 나눠 자신을 지지하는 쪽만 데려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주류 측은 재신임 투표가 오히려 당의 분열을 불러온다며 연기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비주류의 한 관계자는 “당을 둘로 나눠 자신을 지지하는 쪽만 데려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 주류와 비주류 모두 분당 등 극단적인 상황 전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비주류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중앙위 마무리발언을 통해 당 통합추진기구를 긴급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와 김성곤 혁신위원장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 주요 내용

혁신안	주요 내용
1차: 당내 기득권 타파와 기강 확립	- 3분의 2 이상이 외부인사로 이뤄진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하고 막달 등 해당 행위를 평가 항목에 포함한 '교체 지수' 도입.
2차: 지도체제 개편	- 계파정치 청산 위해 현행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총무·조직·전략총부·디지털총부·민생본부 등 5본부장 체제 도입. - 최고위원회 폐지하고 지역·세대·계층·부문별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도 개편.
3차: 당원제도 혁신	- 당원들이 당대표 포함 선출직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 도입. - 당비 대납 원천방지 방안 마련.
4차: 지방분권 강화	-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공천권을 시·도당에 이양. - 시·도당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을 20%로 확대.
5차: 선거제도 개혁	-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당론 채택.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보다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369명 안을 제시.
6차: 당 정체성 확립	-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 - 민주적 시장경제체제·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등 제시.
7차: 청년 정치참여 확대	- 20대 총선시 국회의원 후보의 10% 이상을 청년 후보에 할당 - 20대 총선 공천시 현역의원 평가로 하위 20% 배제. - ▲지도도 여론조사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다면평가 ▲선거기여도 평가 ▲지역구 활동 평가 등 5개 평가 항목 도입. - 도덕성에 문제 있거나 분열·갈등 조장자 공천시 불이익.
8차: 공천 혁신안	- 최고위원회를 당대표, 원내대표, 여성·청년·노동·민생 등 4개 부문 대표, 5개 권역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대표위원회로 개편. - 당무위원회는 현행 10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축소하되 시도당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대표 등 선출직 대거 포함.
9차: 지도체제 개편	- 안심번호 도입을 전제로 20대 총선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는 국민공천단 구성.
10차: 공천 혁신안	- 안심번호 미도입시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율로 선거인단 구성. -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 - 정치신인에 10% 가산점. 여성·장애인은 20~25%.

초특가 일본여행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 ~ 12월 28일(월)

패턴: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 출발

스케줄: 무안(0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10:15) → 무안(02:50)

항공기: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A320-200 / 좌석: 150석

비행기로

(목) 399,000원에 간대!~

(선착순 30명 한정)

천불상 조각가들은 시대 앞서 간 설치미술가

김은영의
‘그림 생각’

(127) 삼천배

무엇을 선택하거나 이루고 싶은 일들이 줄어 들면서 세상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편안하게 느껴진다. 카이사르의 말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인간’이지만 보고 싶지 않은 현실까지도 직시하게 되고, 그동안 무심하게 넘겼던 것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점도 나아가 주는 미덕이라 생각하고 있다.

지난 주말 강진·해남 곳곳에서 전시되고 있는 ‘풍류남도 만화방’전을 관람하러 유럽하듯 다녀왔다. 첫 행선지가 아닌데도 처음 만난 풍경처럼 설렜던 것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금 발견해낸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시장이기도 했던 백련사, 대흥사, 일지암, 미황사 등 천년 고찰에서 유물도 전시작품 곁들인 시작품도 유물처럼 느껴질 만큼, 각별한 어울림을 보였다.

해남 대흥사 천불전(보물 제1807호)의 천불상(전남유형문화재 52)이 특히 새로운 미감으로 다가왔다. 1811년에 화재로 불탄 뒤 2년 후 중건되어 경주 불석산의 옥돌로 조성된 천불이 봉안된 것은 200년 전, 여러 형식의 수인을 한

해남 대흥사의 천불상

채 각기 다른 모습인 천불상은 호분을 칠해 흰 불상 위에 노란색의 대의를 입혀 살가운 느낌이다.

아마 천불을 조각했던 천불전 중건의 주역들은 종교적 도상에 충실하기도 했지만 당대 미학을 창조하고자 했던 앞서가는 조각가였을 것이다. 앞의 조상은 작게, 뒤로 갈수록 크게 조각하는 역원근법을 시도함으로써 보는 이의 시점까지 계산하여 균일하게 보이게 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시대를 앞선 설치미술가이기도 했을 것이다.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한결같이 온화한 표정의 천불은 이번 전시에서도 여러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천불상을 변주한 다채로운 작품들이 탄생되기도 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작가들도 있다고 한다.

천불전 천불상 앞에서 세 번의 큰절을 하였다. 천불상 앞이므로 삼천배에 가깝다하여, 마음 속 소망을 기원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기타큐슈 편도 항공권 69,900원~

(TAX, 유류세 별도) [매회 선착순 5명 한정]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3일 [선착순 30명 한정]
(목) 459,000원 (토) 549,000원

기타큐슈 올레길(가라츠+히라오다이 트레킹) 3일
(목) 529,000원 (토) 629,000원

큐슈 정통(기타큐슈/벳부/유후인/후쿠오카) 초특가 4일 [선착순 30명 한정]
(월) 549,000원

골프 야마구치 조요C.C/아사C.C 3일(36홀)/4일(54홀)
(월)(목)(토) 799,000원~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 234-3222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